



세계가 주목하는 프레스 메이커 SIMPAC

The First - 전 세계 프레스 시장을 선도합니다.

국내 1위의 프레스 전문기업 SIMPAC은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는 프레스기를 생산하며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으며 Global Supplier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Best -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SIMPAC의 링크모션 트랜스퍼 프레스는 SIMPAC 특유의 스코치요크 방식의 구동부를 적용하여 드로잉 가공에 큰 장점을 가지며, 아시아 각국은 물론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며 Global Press Maker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SIMPAC STORY

2015 AUTUMN VOL. 32

기승전결(結):

결실의 기쁨을 누리다





A U T U M N S I M P A C 캠페인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하면 뭉어질 듯한 다리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에 힘이 들지만 그만큼의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또한 마라톤과 같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이라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성공의 열매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어서 혼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비로소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한 해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상을 수상한 뒤 자신이 아닌 경기장 관리인에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경기장을 잘 관리해준 덕분에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 내 동료와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내 옆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나누는 따뜻한 SIMPAC인이 되어봅시다.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5년 AUTUMN

통권 32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5년 11월 16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02-3780-490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주)R큐더스 02-6011-2000

편집 및 디자인 (주)R큐더스 02-6011-2000

인쇄 삼진커뮤니케이션즈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승훈 대리

02-3780-4906

gausy@simpac.co.kr

이웅기 사원

02-3780-4923

wklee@simpac.co.kr

손인성 사원

032-590-2023

isson@simpac.co.kr

(주)SIMPAC

권성안 대리

032-510-0030

sakwon@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산기

김현수 과장

062-717-7214

kimhs@simpac.co.kr

(주)SIMPAC메탈로이

선광규 대리

054-271-8724

kgsun@simpac.co.kr

(주)SIMPAC메탈

이준기 대리

041-360-0122

jkllee@simpac.co.kr



04

04 Best Partners

신화기업 서용선 사장, 금영렬 사원, 고병국 사원

08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1팀 · 2팀

12 차 한잔 나누며 Talk Talk

신입사원들의 달콤 씁쓸한 성장기

18 기획 칼럼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 꾸리기

22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양용진 과장

26 SIMPAC패밀리

SIMPAC메탈로이 전기로C조 이동지 반장 가족

30 With Us

2015 당진 가든파티

34 What's the best?

SIMPAC의 SV4P-2000 서보프레스

36 SIMPAC인의 가을나들이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40 SIMPAC News

SIMPAC 소식

43 Letter from SIMPAC인

칭찬합니다

44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45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12



26



BEST PARTNERS

신화기업 서용선 사장,
금영렬 사원, 고병국 사원

BEST PARTNERS

스스로 척척!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신화기업 서용선 사장, 금영렬 사원, 고병국 사원

어려운 시장상황 등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 하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오늘까지 온전히 혼자만의 능력으로 위기를 이겨냈다고 할 수 없다. 밤낮으로 업무를 함께한 가족같은 동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까지. 아마도 그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SIMPAC인더스트리가 있지 않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SIMPAC인더스트리의 조력자로서 함께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의 협력업체 신화기업의 서용선 사장, 금영렬 사원, 고병국 사원과의 만남을 통해 SIMPAC인더스트리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BEST PARTNERS

신화기업 서용선 사장,
금영렬 사원, 고병국 사원



Q. 회사 및 SIMPAC인더스트리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서용선 사장 : 저희 신화기업은 제품을 박스 포장해서 상하차 출고하는 마무리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함께 가족처럼 일하고 있어요. 31년째 이 일을 해왔고, 소사장제도는 18년째입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업무이지만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결같이 일하다 보니 이렇게 오랜 세월을 큰 사고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Q. 일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서용선 사장 :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청춘을 오롯이 이곳에 바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이곳에서 함께 겪었죠. 그래서 저한테 회사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회사는 그저 월급 많이 주고 남 보기에 그럴듯하면 그만인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같은 일에는 팬츠는 아르바이트생 구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면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직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병국 사원 : 일하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일할 거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하다 보니 작업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영렬 사원 : 일의 특성상 다들 꼼꼼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편입니다. 워낙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믿고 일할 수 있어요. 또, 함께한 세월만큼 눈빛만 봐도 속내까지 훤히 들여다보여서 서로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는 합니다.

Q. 사내 소사장제도의 특징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용선 사장 : 소사장제도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일반 회사와 똑같이 독립적으로 일하되 일에 있어서 좀 더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업무의 특성상 기후 변화 등으로 배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해서 납기일을 맞추는 게 촉박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데요, 휴가, 명절도 없이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팀이나 해외영업팀이랑 같이 공조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해나가고 합니다. 식구가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해서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뛰어야 하고, 바쁜 때일수록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Q. SIMPAC인더스트리와 협력관계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서용선 사장 :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바쁠 때 도움을 요청 해오면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게 현장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 부분이 애매해서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게 부담스러운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사장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서용선 사장 : 31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사진이 있다기 보다는 이 일을 하며 가족을 일켰고, 지금도 이 일 때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게 일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고병국 사원 : 제품의 부피가 큰 편이라 작업 시 안전거리 확보에 늘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제품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올해 이 부분이 개선돼서 일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 좁았던 공간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작업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제일 반갑고 감사하죠.

Q. 2015년 가장 큰 결실은 무엇인가요?



서용선 사장 : 올 초에 비해 일이 한결 많아진 게 가장 큰 결실이라면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하루 작업을 풀가동해야 일하는 맛도 나는 법이거든요, 올 초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작업공간 확보처럼 일하는 환경이 개선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이자 결실이죠, 지금처럼 조금씩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Q. 내년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금영렬 사원 : 회사가 잘 돼서 월급 잘 받고 가정이 화목하면 더 이상 바랄게 있나요, 매년 같은 바람입니다. 그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용선 사장 :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발걸음이 무겁게 퇴근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늘 같을 수는 없죠, 다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날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에 있어서 늘 산모가 출산을 하는 마음으로 진심과 애정을 다해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더 좋은 날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주문도 많이 늘어서 우리 신화 가족과 SIMPAC인더스트리 모두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1팀·2팀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손발이 척척 마음이 착착’ 최강궁합으로 SIMPAC산기를 일구다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1팀·2팀

2015년 2월 SIMPAC그룹에 새로운 가족이 합류했다. 바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SIMPAC산기. 몸집을 키우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심팩산기의 중심에는 기술연구소가 있다. 그 곳에서 합이 잘 맞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기술1팀과 2팀을 만났다.

기술1팀 이행렬 차장, 김근철 과장 | 기술2팀 오용인 차장, 박일우 사원

기술연구소에서 기술1팀과 2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행렬 차장 SIMPAC산기는 타이어 제조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기술연구소에서는 완벽한 제작과 납품을 위해 국내외 클라이언트의 요구조건에 맞춘 설계도 작성과 신기술 개발, 수입 의존 제품의 국산화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연구소에 소속된 네 개의 기술팀이 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업무에 관한 것이라면 팀을 가리지 않고 서로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팀끼리만 일하기보다 18명 전 직원이 부서 개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1, 2팀도 태국과 국내 흥아타이어 등의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담당하면서, 여타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로 돈독한 사이지만, 두 팀의 색깔에는 차이가 있겠죠?



오용인 차장 회사가 규모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편이라, 두 팀 모두 구성원이 딱 두 명으로 꾸려졌는데요. 소수정예다 보니 팀 색깔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술2팀은 선배와 신입이 함께하다 보니 겉은 조용하고 안은 친밀한 편이에요. 워낙 박일우 사원이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언제나 믿음직하죠. 꼭 아쉬운 점을 찾자면 말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기분이 어떨지 한 번에 알아채기가 좀 어려워요.



박일우 사원 과묵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는 편이에요. 고민이 생기면 늘 차장님께 가장 먼저 의논 드리고, 위로도 받고 있으니깐요.



김근철 과장 기술2팀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서로 거침없이 말하고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는 상남자 사이거든요. 처음에는 이행렬 차장 성격을 잘 몰라서 종종 발끈했었는데, 정이 드니까 어떤 사람인지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말도 웃으면서 받아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행렬 차장 상남자가 아니라 톰과 제리예요. 서로 주는 거 없이 알미워하는... (웃음) 그런데 아웅다웅하는 것도 다 애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니깐요. 기술1팀만의 거친 애정표현이라고 봐주세요.



오용인 차장 저 팀은 일 하나는 끝내주는 톰과 제리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막막한 프로젝트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하는 것 보면 역시 최고예요!



일 잘하는 두 팀에게도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행렬 차장 아무래도 기기를 시운전할 때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시운전이 계속 이뤄지니까 대기도 해야 하고,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1팀·2팀



오류를 바로 잡을 방법도 찾아내야 하니깐요, 특히 국외 시운전은 언제 긴급 요청이 올지 몰라서 시간이나 요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박일우 사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일 야근을 많이들 하는데 요, 업무적인 특성이라 감내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신입에게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죠.



오용인 차장 요즘은 3D 설계 프로그램을 익히는 중이라 머리가 더 복잡한 상태예요. 그간 사용해왔던 프로그램 대신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마스터 하려니 마음이 좀 조급하네요.



이행렬 차장 중요한 사실은 설계 프로그램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노하우라서,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빨리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박일우 사원 현재 3D 설계 프로그램을 제가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데요, 선배님들께서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부끄럼도 없다는 멋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을 부담 없이 모조리 나뉘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1팀과 2팀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면 어떤 자질을 우선으로 갖춰야 할까요?



김근철 과장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을 배우기까지 참고 버틸 줄 아는 끈기와 인내심이 능력자를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끈기와 인내심을 갖춘 구성원이라면 환영입니다.



이행렬 차장 모든 청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개인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일이 먼저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용인 차장 먼저 가족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에 따라 생활 사이클이 형성되고,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부러는 아닌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때 가족의 이해가 따라주면 힘이 나고 고맙죠.



박일우 사원 설계라는 일이 혼자서 처리하는 게 많은 영역이라, 집중하다 보면 주변과 소통을 못 할 때가 자주 있어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저한테 말할 줄 아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받거나 동료와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두 팀의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행렬 차장 SIMPAC산기의 역량은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품질은 높지만, 가격 면에서 중국에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가격까지 장점이 있는 상황이라 몇 년 뒤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층 달라질 거라 믿고 있어요. 그 때까지 우리가 품질을 한 단계 더 고급화해서 SIMPAC산기의 이름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김근철 과장 아마 2~3년 내에는 아시아권의 타이어 제조설비를 책임지고, 5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 진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꿈은 크게 꾸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행렬 차장 그런 앞날을 꿈꾼다면 미리 전문 인력을 양성해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연구소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서, 가능성 있는 젊은 피와 숙련된 베테랑을 확보하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용인 차장 기술1팀 2팀이 SIMPAC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 구성원끼리 협력이 잘 돼야 기술연구소 전체의 협력도 가능하니까요.



박일우 사원 아무래도 몸으로 부딪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팀원들이 같이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행렬 차장 예전에는 그런 모임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바쁘고 출장도 자주 가서 잠시 주춤한 상태죠. 당장 큰 모임은 힘드니까 같이 밥 먹고 고민 들어주고 쉼터에서 탁구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용인 차장 거기에 함께 캠핑을 떠나보는 것도 더하고요.

김근철 과장 또 팀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끼리도 가까워지도록 가족 소풍도 더하고요.

박일우 사원 이러다가 우리 정말 SIMPAC그룹에서 최강 팀 되는 거 아닐까요!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신입사원들의
달콤 씹새로운 성장기

SIMPAC홀딩스
전략구매실
이희준 사원

SIMPAC
국내영업팀
이만석 사원

SIMPAC메탈
인사총무팀
이두현 사원

SIMPAC
생산1팀
박결 사원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달콤 쌉싸름한 성장기

‘이제 신입 딱지 떼고
베테랑 향한 시동을
걸고 싶어요’

SIMPAC메탈로이
기획재무팀
소정진 사원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남인호 사원

SIMPAC메탈로이
기획재무팀
안세진 사원

SIMPAC산기
기술연구소 기술2팀
박일우 사원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신입사원들의
달콤 씹새로운 성장기



SIMPAC의 내일을 만드는 그 이름 신입사원. 그들이 특유의 긴장감과 투지를 안고 SIMPAC인이 된 지 어느새 일 년여가 지났다. 실수는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질책 받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한 걸음 성장한 SIMPAC의 막내들. 그들의 달콤 쌉싸름한 성장기를 들어왔다.



Q. 마치 쏜 화살처럼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 SIMPAC에서의 신입 생활은 어땠나요?

이희준 > 언제 취업준비생이었나 할 만큼 적응력 신공을 펼쳐왔어요. 입사 초기에는 자주 혼도 났지만, 그 횟수가 줄면서 '이제 진짜 SIMPAC인인가'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취업준비 당시에 힘들었던 일이 많아서 알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게 좋습니다.

박결 > 저도 회사생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도 팀원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취미생활과 친구와의 만남이 어려워진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만족하고 있죠.

안세진 > 재미와 긴장감이 뒤섞인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팀원들이 다들 타지에서 온 터라 서로 잘 챙겨주니까 힘도 나고 회사생활도 재미있고요. 물론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긴장감은 있되 즐겁게 일하는 중입니다.

남인호 > SIMPAC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소속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어렵더군요. 당장은 아니라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답도 곧 발견하지 않을까요!

Q. 입사 초기와 지금의 내가 같을 수는 없겠죠. 자신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두현 > 슬프게도 풋풋함을 잃고 아저씨다움을 얻었어요.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고 웃도 잘 챙겨 입는 편이었는데, 입사 이후로 업무 외에는 다 느슨해졌죠. 이제 등산복도 자주 입고 수염도 내버려두고 슬리퍼도 늘 신고요. 이런 저를 보고 여동생이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박일우 > 저는 입사 삼 개월 만에 11킬로그램 쉰까 2킬로그램 뺐습니다. 연고 없는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 외롭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거로 풀었거든요. 다행히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한 뒤로는 친구들도 생겼고, 드라이브로 기분전환도 제대로 하고 있죠.

이민석 > 그럼 레저 활동도 곧잘 하고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는 제가 무딘 건가요? 저도 회사에 들어오면 긴장하는데... 그래도 취미활동은 꾸준히 하는 게 좋죠. (모두 웃음)

소정진 > 아무래도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때는 쓰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돈을 벌어보니 참 어렵더군요. 입사 초기보다 돈에 대한 시선과 욕심도 달라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고요.

이희준 > 저나 안세진 사원 같은 신입 여직원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상사 앞에서 말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거든요. '다나까' 어투가 익숙지 않아서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할까 고민에 빠져요. 못다 한 말은 집에 가서 강아지를 붙들고 쏟아내죠.

Q. 신입사원을 웃고 울리는 낯선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요?

이두현 > 성과라면 역시 보람 아닐까요. 매일 직원들의 근태 관리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연말 데이터가 생성되고, 제가 만든 한 장의 자료가 인력 관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뿌듯함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박일우 >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공부 업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해요. 현재 설계 프로그램을 2D에서 3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3D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선배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즐겁고요.

이희준 > 해외수입 업무가 늘면서 이전보다 더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학생 때도 늘 외국어 공부를 했지만, 직접 업무에 투입되니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공부에 대한 갈증과 동기부여가 커졌어요. 제대로 공부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소정진 > 개인보다 팀의 역량이 중요한 업무를 맡다 보니 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학창시절 공부한 것을 실무에 투입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접점도 깨달았고요.



“자신이 목표하는 것과 회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충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라요. 여기 모인 저희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들이는 노력만큼 각자의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안세진 > 저한테 엑셀은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입사 당시에는 숙련도가 낮아 애를 좀 먹었는데,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숙련자가 되더라고요. 이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일하고 있으니 업무 덕분에 업무를 잘하게 된 거예요.

남인호 > 일을 통해 배운 게 꽤 많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상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집어내는 판단력, 어른들과의 유대관계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Q. 실수 없는 신입시절은 없습니다.
실수에 절망한 자신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두현 >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만날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고기에 술 한 잔하고 폭 자는 걸로 저를 다독여요. 다음 날 제법 마음이 기쁘게됩니다.

박결 > 저도 늦게까지 회사에 있기보다 퇴근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잠을 청해요. 그리고 아침이면 씩씩하게 출근합니다. 감정을 빨리 추슬러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박일우 > 워낙 차를 좋아해서 전 튜닝으로 위안을 받아요. 제 손으로 직접 튜닝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적고, 스트레스는 빨리 해소됩니다.

안세진 > 실수에는 더 큰 실수가 최고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실수로 풀이 죽어 있으면 선배님들이 자신들의 실수담을 들려줘요. 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담을 듣고 나면 꽤 위로가 되죠.

**Q. 사수 없는 신입사원은 팔 없는 호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사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희준 > 한 마디로 회사에서는 따끔한 선배, 퇴근 후에는 가까운 술친구! 친구랑 약속이 없을 때는 선배님들과 함께 놀 정도로 친하게 지냅니다.

이민석 > 입사 교육 당시에 근무지 분위기가 어떤지 미리 물어봤더니, 다들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냥 하는 말인가 했는데 사수인 과장님께서 정말 잘

해주셨어요. 실수에 대한 질타는 단호하지만, 필요 이상의 꾸지람은 없어서 분위기가 무겁지는 않아요.

박결 > 제 사수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알고, 어디서 대신 싸워줘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모든 일을 본인이 다 떠안으려 한다는 겁니다. 곧 아기도 나올 텐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해요. 그래야 아기 보러 집에 가죠.

남인호 >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혼도 내지 않잖아요. 모든 사수에게 저희 막내들을 잘 보듬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Q. 막내 딱지를 물려줄 새 신입사원이 등장한다면
어떤 비장의 팁을 전해주고 싶나요?**

이민석 > 후배라,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네요. 그래서 제가 몸소 깨달은 ‘처세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처세라는 말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업무 중에는 늘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남인호 > 이 팁도 처세술의 한 부분일 수 있겠군요. 선배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인사 잘하기예요. 사실 신입사원이 큰 존재감을 주기란 힘들 일이라, 인사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두현 > 뭐니 해도 정신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짜가 혼나고 깨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 그걸 잘 버티내는 정신력을 키워야 성장할 수 있어요.

박결 > 동감입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게 전부가 아님을 사회에 나오면 알게 되는데요. 배운 대로 안 되니까 이 회사 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서 뿌리내려야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소정진 > 자신이 목표하는 것과 회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충한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라요. 여기 모인 저희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들이는 노력만큼 각자의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기획 칼럼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 꾸리기

Thank You!

기획 칼럼

감사의 힘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 꾸리기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라는 말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지요. 왜 감사의 말은 이다지도 중요한 것일까요? 이 말 한마디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인류는 대대손손 이 말의 가치를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종교, 직업과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동네 건달에 지나지 않던 월 톰슨은 뉴욕 근교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했다. 여자 친구를 뒤에 태우고 다닐 오토바이를 한 대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오토바이만 사고 나면 식당일은 때려치울 생각이었다. 어느 날 여자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에게 실수를 했다가 말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지배인은 회의를 소집했다. 지배인이 한 시간 넘게 잔소리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하품을 했지만, 월 톰슨은 오히려 색다른 관점을 배웠다. 지배인이 한 말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하다', '고객에게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내용이었다. 월은 무례한 손님이나 말쑥꾸러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다잡았다. 월은 결국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모으고도 식당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고객들의 인기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고, 그를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가 사장의 책상에 수북이 쌓여갔기 때문이었다. 월은 사장의 배려로 야간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고, 학위를 땀 때는 부지배인으로 승진해 있었다. 식당일을 그만둔 뒤 월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석사학위를 딴 그에게 최고의 기업들이 손을 내밀었다. 그는 지금 전용비행기로 미국 전역을 출장 다니며 휴일에는 페라리를 몰며 여가를 즐긴다. 감사의 마음은 월 톰슨의 인생을 바꾸었다.

감사의 마음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효과

누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조너선 헤이드 교수는 이런 현상을 '상승효과'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행위에 대해 보거나 들었을 때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하는 효과를 말한다.

누군가의 일이 잘 풀리면 곁에 있는 사람도 즐겁고, 당사자는 더욱 즐거워지며 새로운 성취를 이룬다. 긍정적인 힘은 계속 상승해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조너선 교수는 7년 동안 이 '상승효과'에 대해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가슴이 똘똘해지는 감정이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주신경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산모의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자극한다.

연구팀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디오를 시청하게 했다. 한 팀은 감동적인 내용의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여주었고, 한 팀은 엉망진창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그룹의 엄마들 중에서 절반 가량은 모유를 더 많이 분비했고, 아기들을 돌보며 충분한 애정을 표현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엄마들 중의 11퍼센트만이 모유를 수유했다. 연구팀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일수록 상승효과가 크고, 기쁨의 선순환에 들어간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있다. 캘리포니아 테이비스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매컬로프 교수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집단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기분 나쁜 일, 한 그룹은 감사할 일, 한 그룹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게 했다. 감사할 일에 집중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평균 1시간 반 이상 운동에 시간을 투자했으며,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1년간의 심층 분석 끝에 두 교수는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매일 똑같은 직장생활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지?

실험을 하는 동안 피실험자들은 변화했다. 낙천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결단력이 강해졌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어려운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으며,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 있다는 뜻이다.

아침마다 알람이 울리면 괴롭다. 오늘도 또 출근을 하는구나. 힘겹게 몸을 일으켜 씻고 출근을 한다. 이번 주에도 로또는 어김없이 짱이다. 직장인에게 인생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당신의 직장이 형편없는가? 아니다. 당신의 수입이 형편없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상사나 동료나 고객이 당신을 쥐어짜 힘들게 하는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출근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종일 힘들어 하는가?

나의 일은 일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부심과 성취감, 기쁨의 근원이다. 어떤 일이든 감사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구멍가게 운영에서부터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일, 음악을 녹음하는 일에서부터 자료를 입력하는 일까지 모든 일은 소중하다. 일은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가치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일이다.

일이 나에게 주는 유익함에 감사하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익함은 당연히 월급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안정일 것이다. 그 밖에도 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주고,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일은 친구를 제공하고,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준다. 생산적인 삶을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 감사하자. 과장님에게 칭찬을 받은 일에서부터, 동료와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은 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일에 감사하자. 상사가 지금까지 맡은 일에 짐을 더해 주었다면 여분의 일만큼이나 원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노력한 만큼 월급 봉투가 두둑해 질 기회를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 감사는 직장에서의 즐거움을 증가시키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꾸리기

물론 감사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감사의 힘이 일상에서의 걱정거리나 당혹스러운 일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고통이나 불쾌감을 덜 느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화를 안내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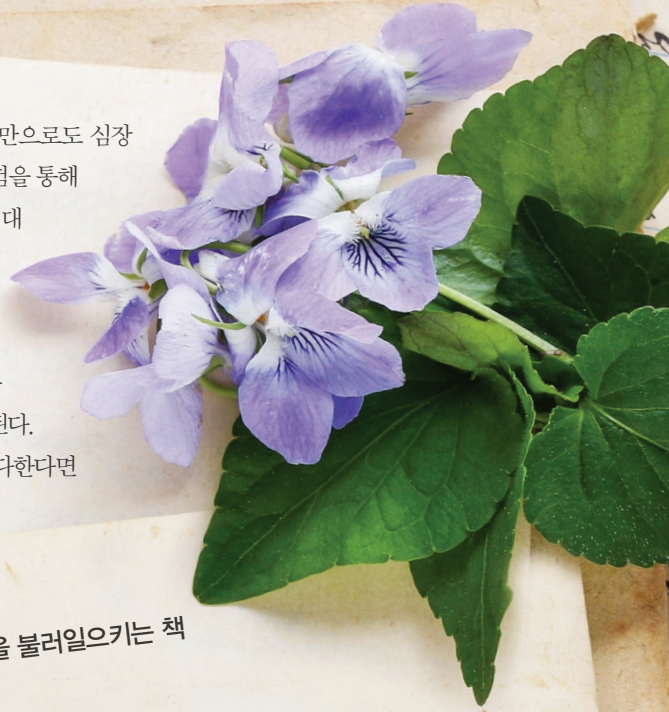
전문가들이 발견한 차이점은 다만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들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감사하는 습관으로 개발해 온 능력을 통해 나쁜 일들을 조금 더 빨리 극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어질러진 집안을 보며 투덜거리는 대신에 청소를 할 시간도 없이 언제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하는 배우자를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든다. 속을 썩이는 자식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대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해진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감사의 마음이 길러진다.

감사는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긍정적인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주치는 모든 것에서 가치있는 것을 적극

적으로 찾아내는 행위다. 감사의 유익함은 무궁무진하다. 감사라는 간단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따라서 심장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 과학 실험을 통해 계속 입증되고 있다. 감사를 생각하고 느끼기만 해도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감사를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수명이 연장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는 점이다.

감사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어디에서든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골치 아픈 일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훨씬 커다란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BOOKS FOR YOU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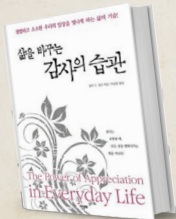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by 데보라 노빌, 위즈덤하우스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은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는 0.3초도 걸리지 않는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이 0.3초의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준다. 각 장마다 흥미로운 일화들이 가득 들어있어 재미있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여러 사람들의 감사한 사연들을 읽고 나면 '상승효과' 때문인지 감사의 마음이 마구 우러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삶을 바꾸는 감사의 습관> by 빌르 c 벨스, 한문하

우리는 흔히 감사를 단순히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일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고상한 인격의 반영이라 고만 한정짓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감사는 그저 이유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 태도임을 알게 된다. 상황 별 예시를 주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려주는 팁이 들어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묵은 분노를 해결하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불러일으킬지 실제적인 가이드가 되어 준다.



<감사의 습관> by 존 크래릭, 한국경제신문

변호사로 일하던 저자는 사무실이 부도나기 직전이었으며,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으며, 자식들과의 사이는 멀어졌고, 희망이 없는 말 대신 자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상황을 맞았다. 문득 어린 시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삶의 끝에서 '감사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저자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 실화를 토대로 한 자전적인 고백록이어서 읽는 내내 흥미진진한 책이다. 대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힘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양용진 과장

제 이야기
들어보실
래요?

“주위의 기대가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양용진 과장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 설계팀 양용진 과장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경력자가 부족한 회사상황에서 업계 16년 차 베테랑인 그는 팀 내에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 게다가 팀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정도 팀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이 자유롭다. 이런 그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직장 이야기가 궁금하다.



Q.R&D 부서의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R&D 부서는 고무, 플라스틱 산업기계 제작 관련 설계가 주 업무이며, 세부적으로는 신제품 개발, 수주 업무 설계, 품질 개선, 원가 절감, 영업 지원, 생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더메이 드의 특성상 설계자가 제작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15명의 부서원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Q.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도와주신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신지요?

제가 (구)봉신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박호천 차장님이 지금 저희 부서에 계시는데요. 회사를 떠나 4년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작년 초에 박 차장님께 연락이 왔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는 회사상황에서 R&D 부서를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경력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함께 일 하자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당시 회사는 비전이 보였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도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됐고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2막의 주역이 바로 박호천 차장님이신 거죠.

Q.올해로 16년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베테랑이십니다.

회사에서 16년차 경력자로서 장단점이 있다면요?

장점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16년 동안의 경험이겠죠.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종과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의 기종을 설계해 본 경험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또,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점은 모든 경력자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일 텐데요. 경력이 있는 만큼 기대치도 높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산업 기계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려는 고객과 회사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회사생활 혹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인수합병 이후 경력직 직원이 많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기계 설계 분야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 업무이다 보니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어려운 업무인 건 맞지만 그만큼 희소성 또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책임도 느껴지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후배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Q.이제 2015년의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가장 큰 결실을 이룬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업무적으로 태영 C&T의 CALENDER LINE 전체를 설계해 본 것이 가장 큰 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기 위주로 설계를 해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생산 라인 전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영업 지원 업무를 통해 현 시장 상황 및 시장 가격, 제조 원가 개념 등에 대한 설계와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 산업기계의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 업무의 특성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다 폭넓게 업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Q.마지막으로 부서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 한해 쉽 없이 달려온 팀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홍일점 막내부터 16년차 과장인 저는 물론, 두 차장님들을 포함하여 15명의 팀원들을 이끌어 체계적인 조직의 변화를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팀장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문구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법이니 힘든 일도 함께 해결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다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극복해나간다면 더 활기하고 즐거운 “내일”도 있을 테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R&D 팀원들 모두 파이팅 합시다!



“

올 한해 쉽 없이 달려온
팀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SIMPAC패밀리

SIMPAC메탈로이
전기로C조
이동지 반장 가족



SIMPAC메탈로이 전기로C조 이동지 반장 가족



누구 생각이었을까. 들썩 짝을 지어 검정과 흰색으로 패밀리 룩을 챙겨 입은 센스. 게다가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 몸짓으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무한 증명하는 모습까지. 외모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은 더욱 닮은 네 사람, SIMPAC메탈로이 전기로C조 이동지 반장과 그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소개한다.

붕어빵 삼부자와 웃음 만발 엄마의 왁자지껄 **HAPPY LIFE**

SIMPAC
패밀리

SIMPAC메탈로이 전기로C조 이동지 반장 가족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일이다. SIMPAC메탈로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합산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꼬박 18년. 오직 한 길만 달려온 이동지 반장의 삶 속에는 너무나 소중한 세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눈빛을 그대로 물려받은 열네 살 사춘기 시크남 민성과 엄마의 뽀얀 피부를 똑 닮은 열두 살 철든 막내 민진. 그리고 무뚝뚝하다는 경상도 남자 셋을 웃게 해주는 아내 강점영 씨는, 그를 18년간 SIMPAC인으로 견도록 한 힘이자 이유이다.

“지난 시간이 저한테는 곧 프라이드이고, 그 프라이드 뒤에는 SIMPAC이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직장이 SIMPAC으로 인수되면서 제 일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별다른 의욕 없이 주어진 일을 했다면, SIMPAC 구성원이 된 후로는 희망을 품고 일하게 됐어요. 근무환경과 임금이 개선되면서 가정생활도 더 안정되니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도 생겨났고요.”

이동지 반장의 자랑스러운 시간은 곧 아내의 것이기도 하다. 점영 씨는 남편의 어깨 가장 가까이에서 좋은 일 힘든 일을 함께 겪어왔다.

“18년이 그리 쉬운 세월은 아니잖아요. 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유난히 가족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어려울 때마다 아이들과 저를 위해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았을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점영 씨의 진심은 아들 민진의 마음과도 닿아있다.

“아빠가 존경스러워요. 피곤하신데도 매일 출근하는 게 대단하고 안타깝고... 그냥 쉬시라고 하고 싶지만,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니깐요. 그게 현실이래요.”

막내의 철든 애기에 이동지 반장의 입 꼬리에서 미소가 폴폴 새어 나왔고, 한창 사춘기를 앓고 있는 민성의 말에는 귀가 쫑긋해졌다.

“어떻게 한 회사에서 18년을 일할 수 있는지 신기해요. 여러 회사에 다녀야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른이 되면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하고 싶어요.”

그간 아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했었나 보다. 민성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던 이동지 반장이 아들의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라고 하자, 민성이 입을 막고 나섰다. 동생과 엄마까지 게임 실력이 좋다고 합세하는데도,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는 척 탄생을 피워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네 가족의 일상풍경이 한눈에 그려졌다.

남편 아내 아이들, 그렇게 한 팀이 되다

경북 영천 남자 이동지 반장과 부산 여자 점영 씨를 이어준 중매꾼은 포항이다. 친구 소개로 포항에 직장을 잡은 이동지 반장은, 친구를 만나러 포항에 온 점영 씨와 우연히 합석하게 됐다. 청춘 남녀의 설레는 만남을 계속 이어간 건 이동지 반장이었다.



“먼저 연락을 한 건 제가 맞지만,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요. 분명히 청순하고 얌전한 아가씨였는데 사귀니까 와일드 하더라고요. 그때는 콩깍지가 너무 두꺼워서 뭐든 예뻐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와일드한 걸 보면 첫인상에 제가 속은 거죠.”

장난기가 발동한 남편에게 밍지 않은 눈빛을 쏟아주던 점영 씨. 당시 남편의 깔끔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부부의 연을 맺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저도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터라 남편의 모든 게 괜찮았어요. 특히 책임감 강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고요. 이 사람이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동지 반장 역시 장녀로서 동생들을 챙기는 아내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청혼을 결심했다니, 두 사람이 제 짝을 제대로 만났다. “부모님 연애 이야기는 처음인데, 그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두 분이 잘 어울리는 편이라 가끔 싸우긴 해도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막내 민견이의 기습적인 평가에 이동지 반장과 점영 씨의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꼬물거리던 작은 생명이 언제 이만큼 자란 것인지. 민견의 한 마디가 처음 부모가 된 그 날로 두 사람을 데려갔다.

“난생처음 아기를 안고는 이 애가 진짜 우리 아들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못 생겨서 깜짝 놀랐거든요. 돌쯤 되니까 어쩔 그리 귀여울 수가 있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못생겼었다는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민성의 항의에 점영 씨도 거들고 나섰다.

“못 생기긴... 그러지 않았어요. 갓난아기를 처음 보니까 낯설어서 그랬던 거죠. 오히려 아이들 키우는 방식을 놓고 갈등한 게 더 고민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키우자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더 보호하기를 원했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자잘한 장난이나 상처, 사고 같은 건 누구나 겪잖아요. 남편은 그걸 지켜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양육방식에 대한 갈등이야 대부분 부모가 겪는 일이지만, 당시 이동지 반장은 꽤 심각했었다. 돌도 되기 전에 다리가 부러진 막내를 보면서, 더 자제시키고 보호하지 않는 아내가 섭섭하기도 했다. 지금이야 가족의 추억담이 됐지만, 행여 크게 다쳤을까 봐 바짝 타들어 가던 심정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다들 때면 자동으로 중재에 나서는 편입니다. 한창 다들 나이로 서로 다치지 않게 화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제 경험담도 들려주고 형제애에 관해서 얘기도 해봤는데, 정말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웃음) 하긴 제 말을 다 알아들으면 그게 아이겠어요, 어른이지.”

사랑의 잔소리, 그 덕분에 행복을 맛보다

올 3월 점영 씨는 작은 여성복 가게를 열었다. 남편의 지지와 엄마 없이도 식사를 챙길 줄 아는 아이들 덕분이다. 그런데 자신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고마운 삼부자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다. 다름 아닌 컴퓨터 게임 때문이다.

“예전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힘들게 설거지를 하던 중예요. 첫째가 방을 어지럽히는데도, 게임에만 정신 팔린 저를 보고 제대로 응징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팍! 그때 잠시 게임을 멀리하다가 지금은 취미 차원에서 정말 조금만 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이동지 반장의 주장에 점영 씨의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날아들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이에요. 첫째 민성이 둘째 민견이 막내가 남편. 한창 육아로 전쟁을 치를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니, 이제는 아이들과 게임 시간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아내의 폭로에 괜히 옆자리에 앉은 민건이에게 컴퓨터 많이 하지 말라는 이동지 반장.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머리를 긁적이는 소년만 남았다.

“엄마는 우리보고 유치하다고 해도 아빠랑 저, 동생은 게임이 중요하거든요. 시간도 정해서 하나까 그렇게 싸우지도 않아요. 가끔 게임에 빠지면 몇 시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요.”

은근슬쩍 아빠 편을 드는 민성에게 힘을 얻었는지 이동지 반장이 아내 설득에 나섰다.

“자녀와의 대화가 실종된 이 시대에, 아이의 관심사를 아빠가 함께 경험하면서 대화를 나눈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심하게 만안 하면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시간을 더 줄여서 셋이 알콩달콩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들들!”

아무래도 당분간은 게임 삼매경 중인 봉어빵 삼부자와 그만을 외치느라 바쁜 엄마의 아우다웅이 계속될 것 같다.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바쁜 네 가족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가족 캠핑. 비록 아빠의 야심 찬 요리는 절반의 성공만 거뒀지만, 자연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보낸 시간은 무척 즐거웠다고 그래서 민성이는 가족 등산을 꿈꾸고 있다.

“힘들지만 함께 정상에 올라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말도 당장 가고 싶어요.”

사춘기를 이유로 말 섞기가 쉽지 않았던 아들의 제안에 흐뭇해진 이동지 반장. 그가 두 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자기 물건 자기 일을 잘 챙기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연습이 학생의 본분을 제대로 해내도록 도와주니까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대신 밖에서 노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우리 막내의 결심도 꼭 지켜졌으면 하고요.”

아이들 얘기에 진지해진 이동지 반장에게 아내 점영 씨도 그간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남편의 모습은 그녀의 오랜 근심거리였다.

“담배 피울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면 바랄 게 없겠어요. 건강해야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깐 흘려들지 마세요.”

아내의 진심 어린 바람, 이동지 반장님 접수하셨나요?

“마음은 먹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아이들이랑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애쓸게요. 그리고 어서 경기가 회복돼서 SIMPAC메탈로이 가족 모두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하니까요!”

회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웃음으로 하나되다 화합과 교류의 장, 2015 당진 가든파티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던 8월 말, SIMPAC메탈에서는 가든파티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한 듯, 당진에는 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특히 이번 가든파티는 SIMPAC홀딩스,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SIMPAC산기의 참석으로 더욱 풍성한 가든파티가 준비될 수 있었다.

본격적인 파티에 앞서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산기의 임직원들은 전기로부터 에어돔까지 SIMPAC메탈의 여러 시설들을 투어하며 향후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투어 후 모든 직원들은 사무복지동 앞 정원에 마련된 파티장소에 모였고 계열사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회장님의 건배사로 파티는 시작되었다. 즉석으로 요리한 바비큐와 소시지,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는 파티의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 파티를 즐겼다.

즐거운 잔치날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게임! 각 계열사 대표로 맥주 빨리 마시기 게임과 제기차기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파티장은 계열사의 이름을 연호하는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뒤이어 여성댄스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파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정원에는 SIMPAC메탈 사옥의 불빛만이 가득할 무렵 각 사의 임직원들은 그 동안 숨겨왔던 노래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모두가 웃음꽃을 입가에 머문 채 파티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직급과 회사에 상관없이 모두가 어깨동무하며 어울렸던 하루 속에서 세계 무대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SIMPAC그룹의 내일을 엿볼 수 있었던 화합의 장이었다.





SIMPAC메탈 공장투어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SIMPAC 메탈 공장투어. 합금철과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SIMPAC메탈의 현장을 돌아보며 향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바비큐타임



회장님의 시원한 건배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가든파티. 생맥주와 바비큐는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가든파티의
그림을 완성했다.



게임이벤트와 공연 및 노래자랑



‘우리 회사가 짱이지’라는 마음으로
불꽃튀는 경쟁을 펼친 다양한 게임부터
모두가 웃음으로 꽃피운 댄스팀 공연과
노래자랑까지! 8월의 하루는
SIMPAC이라는 이름아래 하나된
임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WHAT'S
THE BEST?

SIMPAC의 SV4P-2000
서보프레스



SV4P-2000

유럽 CE 인증 획득 & 첫 독일 수출!

초대형 프리미엄 서보프레스 SV4P-2000

■ Press 사양

주요 구조	
Driving Type	Eccentric Gear + 2단 감속 + Direct Servo Motor
Point No.	4Point (Plunger Guide)
Gib Guide	8 면
Frame Type	Crown, Up-right, Bed 분할형 (Tie Rod 체결식)

주요 사양			
Item		Specification	비고
Capacity	ton	2000	
Rated Tonnage Point	mm	7	
Variable SPM	spm	5~25	
Stroke of Slide	mm	750	
Die Height	mm	1,500	
Slide Adjustment	mm	400	
Bolster Thickness	mm	300	
Slide Size	mm	7,300 x 2,500	
Bolster Size	mm	7,300 x 2,500	

기계 부속 장치			
Item		Specification	비고
Safety Brake		Mechanical	
Counter Balance		공압식 (30 Ton)	
O.L.P (과부하 보호장치)		유압식	편심하중 대응용
급유 방식		순차 분배변에 의한 연속 순환 급유 Total Lube 방식	구동부, Gib
Moving Bolster	구 조	전, 후면 방식	B/C, D/C Air Line
	능 력	60 Ton	
	주행속도	10 M/min	
	경보장치	Buzzer 1EA	

전기 부속 장치			
Item		Specification	비고
전기 제어 방식		PLC(Siemens) Motion Controller	
집중 전자 제어반		별치형	
Operating Panel		팬던트형 & 별치형 (자동화 장치 포함)	전면 우측
운전 Monitor		Touch Panel (19 inch IPC)	
Safety P.L.C		Siemens	
가동 관리 SYSTEM		현재량 관리	
		D/H 자동 조절 장치	
		B/C 전자식 HIGH SET	

Q&A

우리 제품을 소개합니다

SIMPAC 개발팀 송경희 팀장



개발 취지는 무엇이며 기존 제품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서보프레스 제품과의 차별점은 다수의 서보모터(3EA) 적용 및 동기제어 기술이 접목되었고 최대의 볼스터 크기(최우 7,300 X 전후 2,500)를 적용하여 다공정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프레스에서는 Transfer 및 Progressive 2가지 작업이 가능하며 고SPM 및 Pendulum motion을 구현하여 각성형 방법에 최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설비가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서보프레스의 모든 기능에 한 차원 높은 기구학적 구조 및 제어 기술이 적용되었고, 독일 수출용으로 유럽 CE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SV4P-2000은 고정력강판, 알루미늄 등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개발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셨나요?

초대형 서보프레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고사양 및 신규 서보모터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에 처음 수출한다는 부담감이 초기에 많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가 당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엔지니어들의 의견과 토의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작 및 시운전 중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지만 관련부서들의 아이디어 및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결국 문제없는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 외의 반응과 의견은 어떠합니까?

독일에 처음 수출하는 초대형 서보프레스이면서 BMW에 납품되는 부품을 성형한다는 내용을 알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실제 사내에서 완성되어 시운전을 마쳤을 때 당사도 초대형 프리미엄 서보프레스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셨고 아울러 더욱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본 종류와 같은 서보프레스가 프레스시장에서 많은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등 수준 및 더 큰 능력, 다양한 기능을 갖춘 추가 서보프레스 개발 및 납품을 계획하고 있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SV4P-2000 기본 특징 및 용도

특징

- ▶ Simple하고 강한 강성을 가진 직동식(Direct Drive) 구동부 적용 및 Torque Motor 적용으로 강력한 파워 제공
- ▶ 다양한 슬라이드 모션 설정이 가능하여 각 제품에 맞는 최적 모션설정으로 품질 및 생산성 극대화
- ▶ 에너지 뱅크방식 적용으로 속도 감소에 좌우되지 않고 고에너지 능력 유지
- ▶ 가변 Stroke (진자 Motion) 사용에 의한 연속운전 속도 증대
- ▶ Full 전자 모션 Control 및 MPG 적용에 의한 슬라이드 미세조정 기능으로 편의성 극대화
- ▶ 소비전력 절감으로 Running Cost 절감
- ▶ 주변기기와의 완벽한 동기제에 의한 Line 생산성 향상

용도

- ▶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 등의 다양한 Stamping 부품 생산

SIMPAC인의
가을나들이

SIMPAC메달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매년 10월 초 경남 진주 남강에는 아름다운 유등이 강물 위를 수 놓는다. 임진왜란 중 진주대첩 당시 군사신호로 사용된 풍등과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고,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유등을 가지고 승전을 기념하고 역사적 사실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교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만들어진 축제가 바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이다.

포항에서 승용차로 2시간 30분정도, 서울에서는 KTX로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주다. 포항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출발한 우리 가족은 오후 3시경 진주에 도착했다. 고속도로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임시주차장과 서틀버스 승강장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바로 진주 이마트로 향했다. 이곳은 매년 행사 때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진주성 공북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기에 매년 이곳으로 바로 향한다.

주차를 하고 진주성에서 먼저 진주성 외곽을 둘러보고, 바로 축석루로 향했다. 영남제일형승(嶺南第一形勝). 영남에서 제일의 지세와 풍경이라는 현판이 말해주지 않아도 누각의 지세와 그 곳에 걸터앉아 내려보는 남강의 풍경은 정말 최고였다. 내년에 SIMPAC인들이 이곳을 온다면 해가 있을 때의 축석루와 해가 내린 후의 축석루 모두 감상해 보기를 추천한다.

어느덧 시간은 6시를 향해가고 유등을 보기 전 진주 비빔밥 맛을 보러 '천황식당'으로 향했다. 축석루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으면 다다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이 식당은 80년 전통에 3대를 이어 내려오는 진주비빔밥의 대표적인 곳이다. 흡사 장군의 아들 영화에나 나올법한 외관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빛 바랜 액자들이 말해주듯 역사가 오래된 맛집이다. 담백한 비빔밥과 구수한 불향이 매력적인 석쇠불고기를 곁들여 든든히 한끼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축석루로 향했다.

10월에 떠나는 가을여행

선선한 가을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는 10월, 그 동안 가족들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추석과 한글날로 유난히 연휴가 길었던 터라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아우르는 폭 넓은 여행일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눈이 즐겁고 배가 따신 국내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사진 / 글 :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선광규 대리



어느덧 내려 앉은 어둠으로 인해 낮에 바라본 푸르
른 남강은 사라지고, 오색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
나는 또 다른 남강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먼저
다시 올라간 축석루에서 남강의 유등을 한눈에 내
려보고, 강물 위에 떠 있는 흔들다리를 건너 행사장
정면으로 향했다. 언덕 위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축
석루와 오색의 유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축석
문에서 시작한 걸음은 천수교 음악분수까지 이어
졌다.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간식도 사먹고, 물위
에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며 3시간 가량
이곳 저곳을 다니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오늘
의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세상의 정원과 만나는 순천만 정원과 갈대가 손 흔드는 순천만 생태공원

지난 10월10일 한글날과 이어지는 황금연휴 한 가
운데 결혼날짜를 잡은 고마운(?) 입사동기 결혼식

이 전남 순천에서 있었다. 동기 녀석 덕분에 이번
결혼식 축하하는 우리 가족도 함께하는 여행으로 바
뀌버렸다. 3일 연휴라 그런지 장장 6시간 만에 순
천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저녁에 꼬막정식을 맛보
는 것으로 여행 일정을 시작했다. (참고로 10월은
꼬막의 제철이 아니라고 하니 순천에 방문하실 분

들은 10월에는 꼬막정식을 피해주세요.)

둘째 날이 밝았다. 정말 눈이 부실만큼 화창한 날
씨, 이른 동기 녀석의 결혼을 축하하고 우리는 순천
만 정원으로 향했다. 몇 해전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를 위해 가꿔진 이곳 순천만 정원에서는 다양한 나
라들의 정원은 물론, 홍학 등의 동물들도 볼 수 있어



순천만 정원과 생태공원을 한번에 보는 꿀 Tip

순천만 생태공원의 경우 주차장 및 진입로가 협소하여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과 순천만 정원을 함께 볼 예정이라면,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먼저 순천만 정원 서문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입구에서 순천만 정원와 생태공원 통합입장권(8,000원/인)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을 구경하기 전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왕복승차권(8,000원/인)을 예매하고, 기다리는 동안 순천만 정원을 구경합니다.

스카이큐브 정원역에서 문학관역까지 5.8km를 정제없이 시원스레 달린 소형무인케도차에서 보는 순천만의 황금빛 들판도 장관입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면 기차모양의 귀여운 갈대열차를 타고 약 1.5km를 이동하여 순천만 생태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보로 탐방로를 따라 돌러볼 수 있으며, 물때가 맞다면 탐방선을 타고 돌러 볼 수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와 생태공원 통합권, 스카이큐브 왕복승차권만 있으면 교통체증과 주차 걱정 없이 색다른 방법으로

순천만의 정원와 갈대 모두를 편안하게 돌러 볼 수 있습니다.



가족나들이 장소로 더할 나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네 살짜리 아기랑 다니기에는 부담이 되어 습지센터와 꿈의 다리, 중국정원 등을 간략히 둘러보고, 순천만 생태공원을 가기 위해 정원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원역에는 문학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소형무인케도차 '스카이큐브'가 있다. 스카이큐브에서 내린 후 시원한 바람과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갈대열차'로 갈아탄 후에야 비로소 생태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은 뽕뽕한 갈대밭과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있으며, 해질녘 붉게 타오르는 갈대밭은 진짜 가을의 맛을 듬뿍 담은 광경이다. 갈대 사이로 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갯벌 위에 놀러 나온 쟁쟁어와 게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붉은 석양이 내리는 순천만의 갈대를 뒤로하고 막차를 타기 위해 다시 스카이큐브 문학관역으로 향하는 갈대열차에 몸을 실었다. 소형무인케도차는 우리를 태우고 출발지인 정원역에 도착했고, 이제 어둠이 내린 순천만 정원에서 나와 주린 배를 채울 맛집으로 향했다.

순천시내에 위치한 떡갈비 맛집 '금빈회관'에는 한우와 돼지 두 종류의 떡갈비가 있다.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30분가량 관찰한 결과 타지에서 온 관광객은 한우 떡갈비를 주문하고,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한 현지인들은 돼지 떡갈비를 주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걷는다고 고생한 우리 가족을 위해 두 배나 비싼 한우 떡갈비로 저녁을 먹으며 우리 가족의 순천만 여행을 마무리 하였다.

SIMPAC NEWS

SIMPAC
그룹

황교안 국무총리 임금피크제 현장 간담회, SIMPAC에서 열려

지난 9월 4일 SIMPAC 부평 사옥에서는 임금피크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삼성, LG, 롯데, 한화, 포스코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추진중인 주요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담당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가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SIMPAC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과 산업현장을 살피며 2016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격려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SIMPAC

2015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2015년 10월 31일, SIMPAC그룹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주)SIMPAC, SIMPAC인더스트리, SIMPAC홀딩스 임직원 450여명이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에 모여 한마음전진대회를 시행했다. 이날 일정은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을 시작으로 하여 행사 장소인 헤세의 정원에서 장기근속자 포상 시상 및 점심만찬, 족구대회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물로 알차게 준비된 이번 한마음전진대회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SIMPAC NEWS

SIMPAC 메탈로이

새로운 혁신활동의 시작, QSS 5기 Kick-off

지난 9월 10일 좋은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QSS활동의 5기 kick-off가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SIMPAC메탈로이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일터, 효율적인 일터, 깨끗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맹세를 통해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다짐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송호석 사장은 좋은 일터 만들기, 특히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황의 폭풍을 혁신활동을 통해 극복하자는 강한 의지도 다시 한번 다졌다.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나눕니다

지난 10월 24일 SIMPAC그룹 창립일 기념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SIMPAC메탈로이 봉사단 심봉사회



원은 포항시 용흥동 일원에서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몇 해전부터 창립일 즈음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봉사 회원들은 두 팔 걷어 부치고 연탄을 나르고 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다.

골목이 좁아 차도 못 들어오는 곳까지 심봉사 직원들은 하나 둘 연탄을 날랐다.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팔, 다리, 허리가 뻐근해지지만 얼굴에 미소는 흘러 넘쳤다.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한한 얼굴로 다음 집으로 향했다. 다음 곳은 몇 해전 포항에 큰 산불이나 삶의 터전 일부를 잃은 분들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지 더 험한 느낌 때문에 다들 무거운 얼굴로 연탄을 날랐다. 한참 연탄을 나르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고생한다고 따뜻한 커피를 인원수대로 내어오셨다. 나눔을 실천하러 간 자리에서 더 큰 얻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인 것이라 느끼면서 오늘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장기근속자 포상

지난 11월 2일 본사 1층 강당에서 2015년 장기근속 포상이 있었다. 올해는 25년 2명, 20년 3명, 15년, 20년 각각 8명씩 총 21명에게 포상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호석 사장은 과거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영환경도 각자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다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와 함께 직원들을 격려했다.



SIMPAC 인더스트리

뿌리기술경기대회 단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지난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15 뿌리산업주간'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SIMPAC 인더스트리는 뿌리기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뿌리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나게 된 '2015 뿌리산업주간'에서 받은 상이라 의미가 깊다. 올해로 3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경기대회 및 뿌리산업 공모전 시상, 전시회, 취업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진작하고 진정한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국내영업팀 윤희철 사원이
해외영업팀 김용완 사원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내영업팀에서 같이 일하다 해외영업팀으로 부서이동한 김용완 사원을 추천합니다. 김용완 사원은 타 부서 인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며, 모든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멋있는 동료 사원입니다. 국내영업팀에서 1년간 같이 고생하며,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가 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동료입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서가 달라 업무적으로 겹치지 않겠지만 이전보다 더욱 돈독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같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D조 정진교 사원이
전기로D조 안중순 주임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같은 조인 전기로 D조 안중순 주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설비반에서 근무하다 올해 전기로 D조로 오면서 잘 모르고, 서툰 부분이 많은 저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형처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등 바뀐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분야는 물론 조원들이나, 후배들의 일까지 술선수범하는 모습들은 본받고 싶은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올해 처음 같은 조에 편성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같은 산악회 활동을 통해 같이 등산도 즐기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ROLL 생산팀
천병열 사원이 ROLL영업팀 김정복 대리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ROLL영업팀 김정복 대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SIMPAC메탈로이 대리 최고참으로써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원, 대리 모임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 업무 때문에 바쁠 때가 많지만 항상 웃으며 따뜻하게 후배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만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업무나 업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퇴근 후에도 자주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SIMPAC메탈 생산팀 전기로 B조 차기풍 사원이
전기로 B조 김무수 조장에게**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기로 B조 김무수 조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일을 하는 도중 다리를 다쳐서 제어실 조종공 보조로 일주일 정도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김무수 조장님이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을 해주어서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만의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SIMPAC메탈에 처음 입사 했을 때 조장님과 같은 조였는데 다시 한번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위트가 풍부한 조장님 덕분에 항상 조 분위기 밝고 조원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 주셔서 꼭 저희 막내 삼촌 같아 항상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김용완 사원과
윤희철 사원



천병열 사원과
김정복 대리



안중순 주임과
정진교 사원



김무수 조장과
차기풍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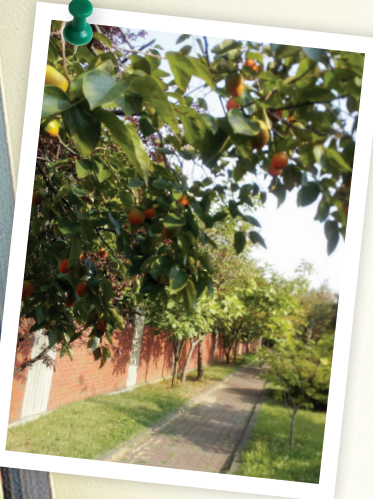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 주제는 "함께 나누고픈 _____"입니다.

from SIMPAC 기술지원팀 황규철 부장
제목 : 재능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싶어요!
내용 : 요즘 색소폰 사랑에 빠져 하고 싶은
음악도 즐기고 봉사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SIMPAC인들과 함께
재능기부봉사에 참여하고 싶네요~
(* 사진 배우고 싶은 분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from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남인호 사원
제목 : SIMPAC인들과 함께 나누고픈 가을 감나무
내용 : SIMPAC인더스트리 정원에는 많은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감나무에는 SIMPAC그룹이 좋은 결실을 맺으라는 듯이 유
난히 큰 감이 많이 열렸네요. SIMPAC인더스트리에 방문하시는
SIMPAC인들에게 아주 맛있는 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from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손인성 사원
제목 : 함께 나누고픈 ENG의 금붕어 가족
내용 : 'ENG 연못엔 니모가 살고 있어요!'
올 초 ENG 사업부문의 정제된 과장님이 새끼 물고기들을
입양했습니다. 처음엔 손톱만큼 작았던 녀석들이 어느덧 엄지손가락 2배 이상으로 커졌어요! 가끔씩 심신이
피로해질 때 녀석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from SIMPAC메탈로이 인사총무팀 도은영 사원
제목 : 가을에 함께 하고픈 커피향기

내용 :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니 커피향이 더욱 그윽하게 느껴지네
요. 다들 업무로 바쁜 일상에 지칠 때 향긋한 커피향의 여유를 가지며 이 가을
을 즐기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도 향긋한 커피향으로 화이팅입니다~



from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오준호 사원
제목 : 가을야구의 재미를 함께 나누고 싶네요!

내용 : 15년을 몸담고 있는 사회인 야구팀. 올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
는 마지막 게임을 이승엽 선수가 400홈런을 날린 포항 야구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짙은 초록색의 잔디를 밟으며 시작된
플레이. 옆치락뒤치락 팽팽하게 이어지는 경기였지만 아들 민규, 현우의
응원 덕분에 승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쾌청한 가을날에 또 다른 추억 하나를 아
이들에게 만들어 준 것 같아 내심 뿌듯합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자 합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수확의 계절 가을, 새로운 결실을 맺는
SIMPAC인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SIMPAC인에게 축하의 말씀 전해주세요.



11월 21일
SIMPAC홀딩스
ENG부문 문민수 사원